

“설 연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안내전시관 문화체험행사 진행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공사 사옥 지하1층 관광안내전시관(TIC: Tourist Information Center)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율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와 한복입기 체험행사가 진행되며, 15일부터는 공예체험과 한글이름 나누어주기 프로그램도 추가된다.

복된 새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설 연휴 3일간은 매일 100명에게 복주머니를 증정한다.

특히 설 당일인 14일(2시, 4시, 5시)에는 150석 규모 상영관에서 가야금, 대금, 피리, 판소리, 장구로 구성된 국악 5중주단, 'YESoul'의 공연을 3회 진행해 청계천으로 나들이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개방형 무료 체험행사로 별도의 예약이나 참가비 없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관광공사는 매일 셋째 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 정기적으로 문화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골든위크 및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helpdesk) 관광안내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C는 관광안내데스크를 비롯하여 한류관, 의료관광홍보센터, 상영관, 관광정보 자료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복합 기능의 방문자 센터로 청계천 광통교변 공사 사옥 지하 1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주요시설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 한국관광공사 사옥 지하1층에서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체험행사가 이달 20일까지 열린다.

‘가고 싶고, 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울산시, “관광울산 위한 관광자원개발 추진 박차”

울산시가 관광자원 확충 및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대형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는 2010년 신규 사업으로 △ 무룡산 생태 탐방로 개설사업 △ 천전리 각석 주변지역 정비사업 △ 외고산 전통 옹기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2차) 타당성 조사 등 3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룡산 생태 탐방로 개설사업’(무룡산 구곡도)은 총 2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북구 연암교차로에서 정자사거리, 길이 10km, 폭 10~12m, 면적 20만9400㎡ 규모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1년 착공, 2015년 준공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무룡산 구곡도의 형태적 아름다움, 풍부한 자연경관을 토대로 ‘가고 싶고, 견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강동권 개발지역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천전리각석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총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반구대 암각화, 암각화전시관, 천전리 각석, 대곡박물관을 관광벨트화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12년 준공될 예정이다.

‘옹기마을 제2차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완공된 울주군 언양읍 고산리 외고산 일원 ‘옹기마을 제1차 관광자원개발 사업’(17만4580㎡)을 토대로 주변지역 정비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월~9월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현황조사, 기본구상, 경제성 등)’을 실시하고 중기재정계획부·옹자 심사,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의 풍부한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광 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증진은 물론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지난해 충북도내 관광지 방문객 7.4% 증가

신종플루 여파로 하반기 관광경기 위축

충청북도는 지난해에 도내 관광지 방문한 관광객 수가 총 43,688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08년 대비 총 3,020천명(7.4%) 증가로 내국인은 2,937천명(7.3%), 외국인 83천명(16.8%)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충청북도가 목표한 45,000천명에는 1,312천명이 못미쳤다. 상반기에는 급격한 인상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요인으로 관광경기가 상당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한편, 그러한 관광여건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08년도에 “3대 국제관광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등 기간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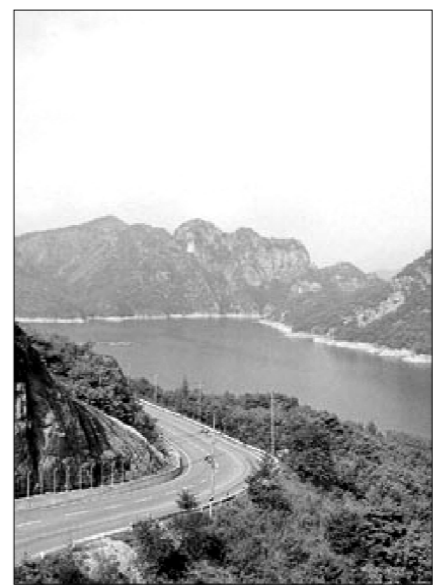
특히, 단양군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08년 대비 78천명(21.4%) 증가한 446천명으로 대명론도, 도담상봉, 옥순봉, 은달관광지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5순위 안에 들도록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펼친 것이 도내 외국 관광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찾는 시·군으로는 제천시 8,749천명, 단양군 8,500천명, 충주시 6,018천명, 청원군 4,770천명, 영동군 3,180천명 순이고, 무료관광지 중 선호 관광지는 제천의 의림지 2,362천명, 영동의 불한계곡 2,024천명, 옥천의 금강유원지 1,751천명, 서화면 1,118천명, 단양의 구담봉 957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료관광지 중 선호관광지로는 대명론도 1,640천명, 상수허브랜드 723천명, 도담상봉 621천명, 화양구곡 507천명, 청풍문화재단지 504천명 순이고, 외국 관광객의 경우 대명론도 238천명, 도담상봉 104천명, 상수허브랜드 49천명, 옥순봉 37천명, 은달관광지 31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여러 가지 관광환경의 악영향으로 도내 방문 관광객 7.4% 증가에 그쳤으나, 금년에는 ‘한국방문의 해’ 및 ‘2010 대중



◆ 단양군

청방문의 해’를 맞아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사업 추진과 충청북도 자체사업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세계태권도 문화축제 등 전국단위·국제행사 개최 및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금년 외래 관광객 목표치 5,000만명 달성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산곡남중

방학 중 과학체험자원 활용 캠프

산곡남중학교(교장 이영숙)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7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서동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한 인천 지역의 과학교육 자원을 활용한 과학탐방 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과학캠프라는 주제로 과학에 흥미와 호기심이 많은 1학년 35명과 2학년 35명을 선발하여 2일 동안 국립생물자원관, 문성자연사박물관, 미추홀물홍보관, 환경미래관(인천대공원내)을 방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비록 표본이기는 하지만 호랑이를 직접 만져볼 수 있었으며, 미추홀물홍보관에서는 물고기의 생태를 직접 관찰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내용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면서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을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인천지역에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대홈타운

지금 방송중...

당신의 행복드라마...

한데 곁에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행복한 주인공, 아름다운 공간-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안에서 행복할 주역이 있습니다.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드라마-한데 곁에서 그 무대를 활사



